

임실군, 청소행정 '결실'

도 자원순환 실태 평가 '우수'

임실군이 연말을 맞아 분야별 우수 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역시 말끔하게 잘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정 받았다.

군은 전라북도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시행한 '2018년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임실군은 연말 시상식때 기관 표창과 함께 200만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올해 실시된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는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발전적 경쟁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시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14개 시·군별 쓰레기 감량 등 청소행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임실군은 청소행정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청결도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 자원재활용 확대, 우수시책 발굴 및 추진 등 4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로 진행됐다.

임실군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생활쓰레기 처리 행정이다.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생활쓰레기 이동처리반 운영 및 불법투기지역 양심화반 설치 사업이 우수시책으로 뽑혔다.

여기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하

여 CCTV 16개소 34대에 대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 점도 모범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그 일환으로 작업 시 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사고방지를 위하여 야간 조명기 배부 및 안전보호장비 4종 140개와 미세먼지 마스크 1만2,000개를 지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순여객,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최우수상

임순여객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농어촌버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평가항목은 경영부분과 서비스부분 2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임순여객은 자체매연검사기 구비 및

에코드라이빙 운전 장려 등 친환경추진 노력분야와 자체 자동차 점검 시스템개발 및 365일 스마트운행 등 경영개선과 서비스개선 노력분야에서 농어촌버스 업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순여객 사인순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원들이 협력하여 이뤄낸 쾌거가 아닌가 싶다"며 "이번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발

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벽지 및 산간지역이 많아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고객만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앞으로도 항상 서비스 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실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 인권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12일 외부식당에서 경찰서 인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형 경찰서장, 정문재 인권위원장 등 경찰관 및 인권위원 10여명이 참석해 순창경찰의 인권보호 정책과 향후 인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문재 인권위원장은 "순창경찰의 인권 함양과 지역주민의 인권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을 도와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태형 서장은 "순창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인권위원회에 감사함을 전하며,



순창경찰서는 경찰서 인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순창경찰은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랑과 동심 '동동·동화' 축제

남원시, 광한루원 복문 남원예촌서 개최

남원시는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남원시가 주관하고 남원시관광협회가 주최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겨울관광의 진수를 선보일 색다른 동동·동화(冬童·童話)축제를 개최한다.

동동·동화 축제는 '겨울(冬), 아이(童), 이야기(童話)' 등의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화투불에 구워먹기를 비롯한 겨울체험과 먹거리, 인형극, 마술쇼 등의 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가족의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아이(童) 테마는 아이들과 가족이 겨울에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겨울놀이 체험으로 연날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비석치기 등 다양한 놀이로 가족동반 관광객들이 재미와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야기(童話) 테마는 한국 관광의 별에 빛나는 남원예촌 한옥 온돌방의 따뜻함과 할머니의 포근함 속 옛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



기 할머니 및 인형극과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선착순 사전예약 (063-620-5658~9)을 받고 있다.

동동·동화 축제는 2018년도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지원 공모사업으로 올해 두번째 행사이며, 남원시에서는 전북도 14개 시군 관광네트워크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 겨울관광의 중심 행사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남원시는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는 2018년 시군 일자리창출 시책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며 도비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 중 4천만원을 활용해 남원시 하반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하여 공동체지원센터, 청년협의체 위원들과 용역사가 참석하였으며, 특히 많은 청년들이 최종보고회에 참석함으로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있었다.

남원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취업선호도 등을 조사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지역 청년과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역여건과 맞는 청년 정책들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남원시가 올 한해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3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농업기반 예산 중 약 60%에 이르는 117억원을 들여 농로 및 경작로 84km를 정비했으며, 용배수로 사업에 104억원을 들여 용배수관 116km를 설치했고, 농경지 용수공급, 배수 등 영농편익과 기후변화에 따른 배수단면 확보 등 재해대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누수 등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수지 7개소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219억을 들여 시설보강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기제, 숲길제, 임촌2제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을 완료계획이다.

또한 4개지구(행정제, 용곡2제, 감동제, 월길제)는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지구(육전제, 과리제)는 2019년 세부설계 및 행안부 설계심의 등을 추진한다. 농업인 공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시비 84억원을 들여 올 가을부터 연차 계획으로 착수한 10개지구 119ha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뒤늦게 결정되어 사업비 중 40%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갈촌, 포암, 화정 지구(40ha)는 연내 사업을 추진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홍역 유행 주의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필리핀 우크라이나 지역에 홍역이 발생 지속되고 있다며, 동절기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사전 확인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므로, MMR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외여행 중에도 손 씻기 및 기침에 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과 귀가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연락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